



페텔 “난 영암 스타일” F1 코리아 2연패

알론소 제치고 ‘시즌 랭킹 1위’ 탈환
웨버 2위 ... 영암 서킷 ‘레드불’ 잔치
슈마허 13위 ... 마지막 한국대회 완주

지구촌 최고의 스피드 축제 F1 코리아 그랑프리 명불허전이었다. 경기 시작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며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를 제치고 드라이버 부문 시즌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페텔은 지난 대회에 이어 한국대회 2연패했다.

특히 팀 동료 마크 웨버(호주)도 2위를 차지하며 레드불은 또 한번 영암 서킷에 삼패인을 뿌렸다. 레드불은 팀 순위인 컨스트럭터 1위를 더욱 견고하게 했다.

페텔은 14일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F1 시즌 16라운드 코리아 그랑프리 결선 레이스에서 5.615km의 서킷 55바퀴(총길이 308.630km)를 1시간36분28초651에 달렸다. 마크 웨버가 8.2초 뒤진 2위로 들어와 레드불은 결선 1, 2위를 휩쓸었다. 레드불은 컨스트럭터(팀) 순위에서 367점으로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2위 페라리(290점)와는 77점 차이다.

페텔은 특히 싱가포르 대회부터 일본, 한국 그랑프리까지 최근 3연승을 내달리며 후반기 우승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한국 대회에서 우승 포인트 25점을 보낸 페텔의 시즌 랭킹 포인트는 215점을 획득, 선두였던 페르난도 알론소를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 이로써 페텔은 2010년부터 3년 연속 F1 챔피언이 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예선 2위를 기록해 팀 동료 웨버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자리에서 출발한 페텔은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첫 번째 코너에서 웨버를 따르 잡았다. 이후 한 번도 1

위 자리를 내놓지 않는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대회의 승패는 초반 타이어 관리에서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운재주 SBS-ESPN 해설위원은 “초반 승부가 굉장히 중요했고, 엔지니어들이 선수들에게 가혹할 만큼 타이어 관리를 요구했다”며 “아슬아슬할 정도로 타이어 관리에서 이긴 페텔이 1위를 차지했고, 초반에 승부를 띄웠지만 타이어관리에서 실패한 해밀턴은 불운의 10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페텔이 초반부터 같은 팀 동료인 웨버와의 승부에서 이기는 등 최근 두 경기에서 보여준 강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챔피언 타이틀을 고지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일본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킨 고바야시 가무이(일본·자우버)는 첫 번째 바퀴에서 젠슨 버튼(영국·맥라렌), 니코 로스베르크(독일·메르세데스)와 충돌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레이스 초반에 기권했다.

또 버튼과 로스베르크 역시 중도 탈락했고 페드로 데라로사(스페인·HRT)까지 더해 이날 출전한 24명 가운데 4명이 완주에 실패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슈마허는 13위로 마지막 한국 대회를 마쳤다. 완주한 선수 가운데 유일한 아시안 드라이버인 나렌 카르티케얀(인도·HRT)은 2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편 시즌 17라운드는 오는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꿈의 레이스’

14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 참가한 머신들이 질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환상의 100분 ... 한 순간도 긴장 풀지 않아”

페텔 우승 인터뷰

“환상적인 경기였다. 벌써 월드챔피언을 향한 다음 레이스가 기대된다.”

지난해 대회에 이어 한국대회 2연패를 달성한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은 레이스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페텔은 “풀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트랙의 가장 고르지 못한 부분에서 출발하게 돼 경기 시작 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오 늘은 스타트가 매우 좋았다”며 “처음부터 팀 동료인 웨버를 역전하고 치고 나간 끝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100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페텔은 “경기 내내 오른쪽 앞바퀴가 약간 이상해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메카닉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도움을 받아 무사히 레이스를 마칠 수 있었다”며 “웨버가 뒤에서 굉음을 울리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팀 동료와 엔지니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타냈다.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와의 월드챔피언 경쟁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맥라렌과 페라리가 추격하고 있어서 긴장되기 때문에 매 대회마다 최고의 모

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비록 한국대회에서 레드불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레이스는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메카닉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다음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상대적으로 레드불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머신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와 세팅 등에서 항상 의견을 조율하면서(우승이라는) 목표에 맞춰 집중하고 주의하고 있다”며 “심리적 이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예선 1위를 차지하고도 팀 동료에게 밀려 2위를 차지한 웨버는 “우승을 못한 것은 아쉽지만 결과가 만족한다”며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 기쁘다”고 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영암 서킷 온 QPR 구단주 “한국 선수 더 영입할수도”



페르난데스 구단주

박지성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퀸스 파크 레인저스(QPR)의 구단주로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 토니 페르난데스(58) 구단주가 14일 영암 서킷을 찾아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응원했다. 그는 이번 F1에 출전한 케이티엄 F1 팀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QPR의 시즌 첫 경기(스완지시티전 0-5 QPR패)를 빼면 경기 내용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며 “강팀을 상대로 득점을 올리는 등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지성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도 내비쳤다. 그는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의 첫 아시아인 주장이 된 것이 같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정말 자랑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해외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 박지성은 20분 정도를 뭘 때까 찾았고 모든 경기를 뛰지도 않았다”면서 “QPR에서 박지성은 거의 모든 경기에서 90분을 소화하며, 6~7경기만 보고 선수를 평가한다는 것은 바보같은 소리”라고 밝혔다.

또 박지성 덕에 한국 축구선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그는 추가로 한국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축구선수들은 몸 상태도 좋고, 훈련이 잘돼 있으며 경기 감각도 남다르다”며 “한국 선수를 더 데려오지 않는다면 한심한 것이며 기성용도 영입하고 싶었지만 셀틱과 이야기가 잘 안됐다”고 소개했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호랑이 조련사들 이젠 ‘호랑이 사냥’

김성한 한화 수석코치 합류 ... 이강철은 넥센 코치로

김성한 KBO 기술위원이 ‘김응용 사단’에 합류한다. 김성한 위원이 한화 이글스 수석코치로 그라운드에 복귀한다. 2004년 KIA 감독에서 물러난 뒤 8년 만의 현장 복귀다. 프로야구 원년(1982년)부터 1995년까지 ‘호랑이 군단’을 대표하는 강타자로 활약한 김 수석코치는 김응용 감독 밑에서 타격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쌓은 뒤, 2000시즌이 끝난 후 타이거즈 3대 감독으로 취임했다. KIA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에는 군산상고 감독, 베이징 올림픽 야구대표팀 상비군 코

치, 제2회 WBC 국가대표팀 수석코치, 광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기술위원회 위원, 해설 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이중범에 이어 김성한 위원이 수석코치로 한화 유니폼을 입으면서 ‘김응용 사단’의 큰 틀이 갖춰지게 됐다.

이와 함께 KIA 투수코치로 뛰었던 이강철 코치가 넥센 새 사령탑을 맡게 된 광주일고 출신의 열혈팬 신임감독의 요청으로 넥센 수석코치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화와 넥센의 사령탑 변동이라는 돌발 변수 속에 이중범을 시작으로 타이거즈 출신의 대이동이 이뤄지면서 2013시즌 프로



김성한 한화 코치



이강철 넥센 코치

야구의 지략싸움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인비 LPGA 사임다비 우승

최나연에 2타차 역전승

박인비(24)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임다비 대회에서 우승, 시즌 2승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골프장(파71·620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4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적어낸 박인비는 전날까지 단독 선두였던 최나연(25·SK텔레콤)을 2타차로 제치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특급대회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에 오른 박인비는 이날 우승과 2008년 US여자오픈 우승을 포함해 LPGA 투어 통산 3승

을 기록했다.

우승 상금 28만5천달러를 받은 박인비는 시즌 상금 랭킹에서도 1위를 굳건히 지켜 생애 첫 상금왕으로 가는 길에 가속도를 붙였다.

디펜딩 챔피언 최나연은 마지막날 타수를 즐기지 못해 13언더파 271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8승을 합작했다.

공동 2위에서 마지막날을 시작한 박인비는 전반에 2타를 줄였지만 동반 플레이를 한 최나연도 같은 타수를 쳐 2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박인비는 후반들어 14번 홀까지 버디 4개를 뽑아내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연합뉴스



14일 LPGA 투어 사임다비 대회에서 박인비가 우승컵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